

소흘읍 송우 청소년 공부방 문열어

지역청소년들의 수준 높은 공부방으로 운영



송우 청소년 공부방을 2월29일 개원했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8-10번지 추산마을 송우주공 5단지 복지관에 마련한 청소년공부방은 소흘읍 거주 초·중·고등학생중 희망자에 한해 오후4시부터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청소년공부방은 독서실 1실, 공부

방 1실, 상담실 1실, 화장실 2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서실에는 24석, 공부방은 20석이 갖추어져 있다. 특히 청소년공부방에 상근하는 지도교사는 추산초등학교에서 정년퇴직한 교사로서 지역학생들의 스승으로 면학분위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흘읍청소년지도위원회가 위탁 관리 하는 방식으로 마련된 청소년 공부방을 개원한 이장욱(사진·55) 위원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설 학원에 등록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공부방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영어나 수학 교육에 나서줄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누군가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우 청소년 공부방(031-543-3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소흘읍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 학습능력 향상과 자아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소흘읍 송우 청소년 공부방을 2월29일 개원했다.

인터뷰 ... 포천시학원연합회 제14대 회장 이종진

불법 개인고객과의 척결 노력 계속



인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부가가치세 부과저지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억제하기도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3.5%에서 2%로 대폭 인하하여 학원 경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문화예술 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하고 포천시 예능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해 오기도 했다.

이 회장은 자율정화위원회 활동으로 학원의 건전한 교육 풍토확립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학원교육의 성과에 대한 엄정한 비교·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안이 되도록 해왔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이 교육으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무료 수강으로 불우환경에 놓인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으며 각종 연주회 및 지역 문화예술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학원연합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자’

포천 동화읽는 어른모임 7기 모집

어린이도서연구회 경기북부지부 포천지회(회장 이운아)는 3월 20일부터 4월6일까지 포천 동화읽는 어른 제7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포천지회는 좋은 어린이 책을 함께 읽고 권장하며 올바른 독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한다. 오전11시부터 오후4시까지 포천 도서관 어린이자료실(010-2750-

5574)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입회원은 4월7일 마음을 살피우는 책읽기, 4월14일 기본강의, 4월21일 오리엔테이션, 4월28일 우리창작 등의 교육을 받게 되며 참가비는 2만원이고 강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다.

신입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포천동화읽기어른모임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함께 공부해요

위의지칙(威儀之則) ㉑

禮記에 日君子之容은 舒遲니 見所尊者하고 齊 아니라 足容重하며 手容恭하며 目容端하며 口容止하며 聲容靜하며 頭容直하며 氣容肅하며 立容德하며 色容莊이나라.

예기(禮記)말하기를 “군자의 얼굴 모습은 여유 있고 고요 하지만 존경해야할 사람을 보면 공경하고 조심하는 태도를 짓는다. 발의 모습은 무겁게 있고 손의 모습은 공손하고 머리 모습은 곧고 기운은 엄숙하고 서 있는 모습은 덕이 있고 낮 빛은 장중(莊重)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수양하여 이같은 모습을 가지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양 주 승 본지 지문위원외 고문

반 친구들 모두 친하게 지내자

포천 초등학교 시업식 갖고 모범반 다짐

포천초등학교(교장 임종수)는 지난 졸업식날 반을 정해 주었고, 오늘 시업식을 하며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정해졌다.

새로 오신 담임선생님과 새로 같은 반이 된 친구들, 이제 5학년이 되었으니 예쁘게 멋 내고 학교에 가도 꾸중 할 선생님이 적어졌다다는 기분이 좋은 일이다. 이와 더불어 아끼고 보살펴야 할 후배들이 많아지니 책임감이 느껴진다.

첫날로 담임선생님 소개와 친구

들 한 사람씩 자기소개와 질문을 한 후, 일 년 동안 모범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5학년 장 지혜 어린이는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져서 섭섭했지만 이번 같은 반이 된 친구들을 보니 모두 착해 보여서 좋은 친구들을 가도 꾸중 할 선생님이 적어졌다다는 기분이 좋은 일이다. 이와 더불어 아끼고 보살펴야 할 후배들이 많아지니 책임감이 느껴진다.

이지연 학생명예기자(포천초 5년) skfkgk3@hanmail.net

포천시립도서관 상반기 문화교실

4월6일까지 3개월간 일동 및 영중도서관

포천시립 일동도서관 및 영중공공도서관에서는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08년 상반기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2007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포천시립도서관 문화교실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되며 시민들에게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문화화를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정보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더불어 도서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종합문화공간의 선두로서

건전한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도서관의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반기 문화교실에서는 “독서와 함께하는 미술교실”, “영어와 함께하는 Read & Think”, “어린이 스피치”, “영화, 영화 논술” 등 미술·영어·발표·논술 강좌 등 다양하면서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3월 10일부터 포천시립일동도서관과 영중공공도서관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포천 시립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pcs21.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나의 2008년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6학년이 되는 도평 초등학교 현해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일 큰 언니 오빠가 되었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기고 새로운 친구, 새로운 교실, 새로운 선생님의 대한 설렘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학교에 가는 언니·오빠들과 헤어지는 선생님을 생각하면 섭섭하면서 슬프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생님과

거운 생활을 생각하면 좋기 두 구요! 이제 6학년이 되니까 초등학교에서는 마지막 1년이 되는 거라 아쉽기도 하구! 1년을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도 든답니다~ 올해에는 활이 들어서 집안 일 두 많이 도와드리려는 그런 제가 되고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를 정말로 보람차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제가 되어야겠습니. 그런 2008년이 되어야겠죠?



현혜선 학생명예기자·도평초 6년

올해는 열심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200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년을 맞는 나의 각오

새 학년이 되면서 1년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했다. 훌륭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뭔가 달랐다고 하고, 내가 존경하는 김영우 선배님도 초등학교 시절에 정교 회장이셨는데 나는 학급 부회장이 못 했다.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폭 넓은 리더십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나에겐 언제나 2% 부족한 느낌이다.

어느 과학 서적을 읽다보니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돌아보라.” 라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나도 고민 끝에 며칠 동안, 1학년 때 부터 써 두었던 수 십 권의 일기장을 읽어보았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며 자라왔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노력해야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나에게는 역시 리더쉽이 문제였다. 그래서 2008년에는 리더십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그러기 위하여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단체가 좋을지 나름대로 조사 해 보고 걸스카우트에서 경험의 폭을 넓혀 보기로 했다. 걸스카우트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모임을 통해 더 재미있고 즐겁게 활동하며 여러 가지 다양



이지연 학생명예기자·포천초 5년

한 경험 속에서 서로 도우며 책임감과 자기주장을 가지고 행동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단체이며 전 세계에 144개국에 1,000만 명의 걸스카우트 회원들이 교류 활동을 한다고 하니, 2008년 나의 5학년은 걸스카우트에 가입하여 세계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이다.

운담초 입학식 날 표정

어제까지 화창했던 하늘이 흐리면서 어두워지더니 황사 바람과 눈송이가 하나 둘 휘날리기 시작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일이면 입학식과 시업식이 있는데, 어찌나~ 걱정이다. 내일은 날씨가 좋아야 할텐데.

좋은 일기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이 들었다.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창밖을 보니 맑은 날씨가 상쾌함을 느끼게 했다. 서둘러서 교문 앞에 도착하니 입학식을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어린이들을 환영하며 안내하는 듯 했다.

부모님 손을 꼭잡고 그네 뛰는 아이도 있고, 방울모자를 쓰고 강충강충 뛰는 아이도 있고,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아이도 있다. 모두가 강당에 모였고, 맨앞 줄에 1학년부터 각 학년들의 자리가 앉고, 곧 6학년의 자리 배치가 되었다.

입학식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쁜 화분들이 입학식을 축하했고, 꽃들과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실랑실랑 몸을 흔들며 아이들을 반기고 있었다.

식순에 의해 입학식 노래가 강당에 울려 퍼지고, 산만한 아이들은 앞뒤를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5년 전에, 입학식 때에 엄마가 나를 보시면서, “은혜야, 입에서

손 빼”라고 손가락 물고 있던 내게 눈치 주시던 일이 스쳐 지나 갔다.

“이어서, 재학생 대표, 6학년 조은혜 어린이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하는 사화사 선생님의 소개에 이어 축사를 했다.

잘왔다, 동생들아, 작고 아담한 운담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뛰어보자 하면서 1학년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적은 수의 어린이가 입학해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다. 다른 학교에 비해 모든 시설이 뒤질 것이 없는 알찬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먼 소재지 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와야할 어린이들이 일동초등학교를 많이 간다고 한다. 어른들이 지역사회를 잘 돌보고, 신경쓰고, 사랑해서 내년에는 많은 입학생들이 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치부의 귀여운 동생들은 주위가 어색하지, 이리저리 둘러 보며, 강당에서 뛰고, 울고 하는 천진스러움이 우리 모두를 웃게 했다.

교장선생님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셨다. 이제는 6학년이 학교에 새주인이 되었으니, 학교에 지킴이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등하교 시간이 되었으면 어떻게? 비둘기 두마리가 운동장 하늘을 날며 ‘정말 괜찮은 생각이야!’ 하며 나는 듯 했다.

운담초 입학식 날 표정



조은혜 학생명예기자단 부단장 윤담초 6년

생님과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소개할 차례가 되었다. 우리 6학년 선생님도 새로 오셨는데, 우리들을 아끼같이 대해 주시는 것 같아,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선생님 보시기에는 우리들이 1학년처럼 느껴지시나 보다.이 모든 생각들을 여럿하게 바꿔 드러야겠다고 생각해 본다.

입학식이 끝나고, 강당을 분주하게 정리했다. 의자와 단상을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고, 풍선은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한손에 풍선을 들며 손에 손 잡고, 동생들의 보폭에 맞추어 뛰놀며, 어느날 T.V에서 보도된 일 떠들려 본다.

CCTV를 설치해서, 교문 밖의 횡단보도와 그 외의 상황을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시고, 일일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교통신고를 막아 주는, 등하교 시간이 되었으면 어떻게?

비둘기 두마리가 운동장 하늘을 날며 ‘정말 괜찮은 생각이야!’ 하며 나는 듯 했다.

학교적응 심리상담 ⑧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②

오늘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집중력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과거 어머니와 아버님의 기억을 되짚어 보십시오. 그러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적분한 책상이 눈에 들어와 책상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 정돈을 끝내고 나면 기운이 다 빠져버려 막상 공부에 집중하기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경험 한두 번쯤 하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든 깔끔하게 정리정돈 되고 끝맺음이 된 일보다는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머릿속에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의집중을 방해하고 공부에 지장을 주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기에 앞서 쉽게 마무리할 수 없는 일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공부를 하기전이나 공부 중간에 생각이 많아지거나 공상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떠오르는 공상이나 생각들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해도 그렇다고 실컷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끝내 부해야하는데 나는 딴 생각을 했어 라는 마음과 함께 죄책감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책은 잠시 접어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깐 공간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부하는 장소를 벗어나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부시간에 잠시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리를 이탈하여 공상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공상시간에 잠깐 공부를 한 것이 되고 공상에 집중하다보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공부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공상시간도 공부계획 안에 포함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수행해도 특별한 관심거리나 걱정이 있으면 누구나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계획 하에 잠깐 공상이나

딴 생각을 하면 중요한 것이 공부하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집중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그 시간에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였다면 뇌 또한 그 시간이 되면 미리 공부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욱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의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그리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좋은 10가지 방법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담문의: 우리심리상담센터 031-541-0954

유정현 우리심리상담센터 책임연구원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 마켓팅어

수와셈 6. (대화) (2) *여기서 만가요? 이시화아 후렴이여? (Is it far from here?) *그럼요, 1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데요. 슈어, 텐마일서웨이. (Sure, ten miles away.) * 차로 15분이면 가겠네요. 와이퀸메이짓 워딩유틸인미닛스 <We can make it within 15 minutes.> * 당신 살 찌는 것 같아, 몸무게가 얼마야? 유루육게릿윅 핫스유어웨이? <You look getting fat, what is your weight?> * 조금, 100파운드 조금 넘어(한국 50kg) 낫머취, 어리틀오버 핸드렛 파운즈 <Not much, a little over hundred pounds.> * 저 사람 키 정말 크다 그치? 히스워일러블맨, 이즈닛? (He's really tallman, isn't it?) * 그래, 6척이 넘는 것 같아 야, 아이게스 오버씩스워이 <Yeah, I guess over six feet.>

문의: 윤 중 성 (017-723-4977)colyoon@nate.com